

지역 **메아리**

고창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2018년 2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거리에 상관없이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게 되어 교통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고창군(군수 박우정)과 (주)대한국속(대표 김재두) 지난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일요금제의 성공적 추진과 공조체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번 단일요금제 시행은 고창군이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 해소를 통해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아울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1일부터는 고창 농어촌버스 전 구간을 대상으로 거리에 관계없이 성인의 경우에는 1000원, 학생 및 어린이는 500원의 요금제가 적용된다.

중점에는 기본요금 1400원에 km당 116.14원을 추가해 최고 4550원을 부담했으나, 2018년 2월 1일부터는 이 같은 구간요금제가 폐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진안군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과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진안군이 진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진안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2018년 1월 1일부터 진안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 총 12종에 해당된다. 사고 사망 시 1천만원, 후유장애 발생 시 정도(3%~100%)에 따라 최대 1천만원 한도 내, 의료사고 법률지원의 경우 변호사 착수금(80%)에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지급한다.

특히, 군민안전보험의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통·번역서비스사업 '호응'

장수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최문식)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수군 통·번역서비스사업이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장수군이 2014년부터 활발히 진행, 2017년에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가 특성화 부문에서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관한 통·번역지원사업으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사회에서 언어 장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외국인들에게 통역, 번역,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이 원활한 한국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생활, 법률, 의료,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외국인뿐만 아니라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한국인들에게도 상당히 유용하여 행정, 금융, 의료기관등에서도 많은 서비스 제공 요청이 이뤄지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한해 마무리 종무식 가져

진안군이 지난 29일 군청 강당에서 이항로 군수를 비롯해 200여 명의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종무식'을 갖고 한해를 마무리하며 새해에 대한 각오와 결의를 다졌다.

이날 종무식은 각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시상과 이항로 군수의 송년사에 이어 2017년 신규공무원들의 소감과 각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의 색소폰 연주로 진행됐다.

이항로 군수는 "급변하는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군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명감을 불태운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고창군의 대표축제인 '고창모양성제'가 2018년도 문화관광축제의 유망축제로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고창모양성제' 유망축제로

문화관광축제 3년 연속 선정 쾌거... 홍보 마케팅 등 지원받아

고창군의 대표축제인 '고창모양성제'가 2018년도 문화관광축제의 유망축제로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다양한 축제 중 성장 가능성이 있는 축제를 문화관광 지원화하고 관광상품으로 특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관광 특화를 위한 생산성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매년 문화관광 축제를 선정해 왔다.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면 등급에 따라 홍보 마케팅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고창 모양성제'는 조선 단종원년(1453년) 국난극복을 위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축성된 고창읍성(모양성)의 축성정신을 기리고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체험형 축제로 매년

중앙절(음력 9월 9일) 전후로 개최되고 있다.

축제 기간동안 담성놀이와 강강술래(경연대회)를 비롯한 조선시대 병영문화체험, 거러퍼레이드, 원님부일 행사 재연, 전통 혼례식과 조선관아 체험 등 전통문화를 보존 전승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다양한 먹거리가 마련되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알찬 축제로 사랑받아 왔다.

특히 2017년 고창모양성제에서는 축제와 함께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과 선운산도립공원을 비롯해 석정휴스와 등 지역 관광명소를 연계하는 셔틀버스 운행 등 관광객들의 편의를 돕고 축제 참여에 관심을 기하는 알찬 축제 운영에 힘썼다.

(사)고창모양성보존회 진남표 회장

은 "3년 연속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각 사회기관 단체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자원봉사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박우정 군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로 군민과 관광객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모두가 어우러지는 즐거운 축제 운영에 힘써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고창모양성제가 3년 연속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축제관리와 특색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군,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지원 나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

무주군이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 원씩을 지원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지만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방문, 우편, 팩스 접수하면 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백선미 일자리 담당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이 좋은 조건의 지원을 받고 올해 번창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우리 군에서는 풀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내용 알리기에 주력하는 한편,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신속한 접수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30

프라인은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방문, 우편, 팩스 접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부안군 나누미군농장학재단, 장학기금 기탁 '쇄도'

부안군 나누미군농장학재단(이사장 김종규) 장학기금 기탁이 연말 쇄도하고 있어 추운 겨울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고 있다.

나누미군농장학재단은 최근 부안 해성병원(원장 주세혁) 1,000만원, 대명리조트 변산(총지배인 정병원) 474만원, (유)동서산업(대표 장혜자)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부안군청 여성팀장 모임인 '파워우먼'(회장 김선숙)에서도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부안군 나누미군농장학재단은 지난 2004년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군 출연금 3억 원으로 설립돼 현재는 130여명의 장학기금이 조성돼 있으며, 2017년에는 '커피 2잔값, 1만원의 가격'으로 불리는 1만원 정기후원자가 6,600명을 넘어서면서 전국최초 대학교 신입생 1학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등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부안군 나누미군농장학재단(이사장 김종규) 장학기금 기탁이 연말 쇄도하고 있어 추운 겨울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고 있다.

김종규 이사장은 "십시일반 후원에 주시는 한분 한분의 마음과 정성이 모여 전국최초대학교 신입생 1학기 반값등록금 실현할 수 있었다"며 "보

부안 해성병원 1000만원 등

내주시 귀한 뜻 잊지 않고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장학사업으로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도내 자치단체장 신년사
"명실상부한 한국인의 본향, 힘차게 도약"

박우정 고창군수

존 경 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가슴 벅찬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굳정 발전을 기꺼이 도와주신 고창군민과 재외군민 여러분 덕분에 인구 6만 여의 굳건한 유지와 국가예산 최다액 확보, 도내 최초 국가지질공원 등재, 공공기관 청렴도 도내 1위 및 3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 등 명실상부한 '한국인의 본향, 고창'으로 빛나는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미래 100년을 향한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과 민선 7기가 시작되는 해로 더 멀리, 더 높이, 더 큰 도약을 위한 뜻을 울려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고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 유적과 관소리 고창농악 등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이 풍부한 고창군이 나아갈 길은 분명합니다.

뚜렷한 발전 목표 속에 대한민국 최고의 자연생태환경도시로의

위상을 높이며 유구한 역사와 문화자원과 관광명소를 연계·결합하면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불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아름답고 매력 있는 문화중심도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농축수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든든한 정책으로 농축어민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하고 도시 소비자들의 신뢰 속에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행복발전터가 가득한 고창군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고창을 도시첨수예방 종합사업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비롯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등 안전 고창을 완성하고,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회합과 협력으로 한자게 달려온 어제의 땀방울과 오늘의 성실한 노력이 모여, 내일의 희망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오직 '고창군 발전'과 '국민의 행복'만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정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기대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평온한 가운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중심 행복도시 되도록 힘차게"

최용득 장수군수

존 경 하는 도민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장수군은 '국민이 중심되는 행복장수'를 군정 지표로 삼고 사람과 자연, 모두가 건강하고 살기 좋은 장수, 군민이 행복한 장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온 한해였습니다.

2018년 새해에는 6차산업의 활성화와 안전하고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주민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수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

여 지금보다 살기 좋은 장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과 감동이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 그리고 고른 복지정책으로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미래형 농촌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올 한해에도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장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차게 뛰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에도 장수군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대하며 도민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행복과 번영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 개장
산림문화·휴양·체험·교육 등 제공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와 내도리, 오산리 일원에 조성된 향로산 자연휴양림이 1월 1일 개장했다.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은 무주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산림문화와 휴양, 체험, 교육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268ha 규모에 세미나 시설과 회의실을 갖춘 숙박시설과 방문자센터, 워터, 주차장 등으로 구성된 편의시설, 그리고 위생 시설(공동화장실)과 체험시설(인공폭포, 바다분수, 야영장), 모험 시설(모노레일)을 갖추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입장료는 어린이가 5백 원(10인 이상 단체 3백 원), 청소년과 군인이 8백 원(단체 5백 원), 어른은 1천 원(단체 8백 원)이며 주차료는 경차가 하루 1천 5백 원, 중·소형이 3천 원, 대형이 5천 원이다.

모노레일(1.5km)은 어른 5천 원, 청소년·군인 4천 원, 어린이 3천 원이며 자동차야영장 이용료는 2만 원이다. 숙박시설(19.04㎡~141.34㎡)은 면적에 따라 비수기



(평일)에는 4만 원~24만 원, 성수기(매년 7~8월 & 토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 토요일·공휴일 전날)에는 5만 원~35만 원이다.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일원에는 내도리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비롯한 맛 체험 농촌관광마을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금강을 비롯한 전통사찰 복고사 등의 불거리와 어죽, 북송이, 사과 등 먹거리와, 패러글라이딩과 MTB, 래프팅 등을 즐길 수 있는 레포츠 시설 등이 있어 시너지 효과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